Kawan, si sebelah pemahaman

☼ friend, beyond understanding

☼ 이해를 넘어선 친구가 되는 법

Rumah Bethany, 10월의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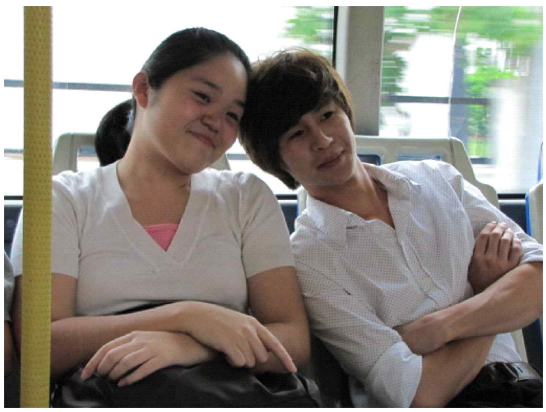
김현진, Jake
박온유, Annie
신인하, Ina
윤하림, Halim
조수영, Sue

10월의 말레이시아,

Kawan, sl sebelah pemahaman ☼ frlend, beyond understandlng
☼ 이해를 넘어선 친구가 되는 법

1. Goodbye, Kuala Lumpur

누구나 그렇듯, 어디서나 그렇듯. 작별은 항상 어렵다. 곧 다시 만날 걸 뻔히 알면서 하는 이별도 그토록 어려운데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하니 결코 '안녕' 이란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세 번이나 하게 되었다.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첫 번째 이별. 처음 말레이시아 땅을 밟으며, KL로 들어서며 우리 중 누구도 이 날을 상상하지 못했다. 수화 선생님 Sandy와 작별인사를 하며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만 Annie를 보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겐 친구가 생겼다는 걸, 서로 달라서 서로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는 KL로 돌아가면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보다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남은 4달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겐 살아냈다는 보람보다는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단 아쉬움이 더 크다.



KL 생활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주러 간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살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음에도 실제로는 민폐를 많이 끼쳤다. 지난 한 달 우리는 PMY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 같았고, deaf들보다 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며 항상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모두 우리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걱정해주었다. 우리는 이런 배려와 보살핌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이런 고민은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얻는 보람을 찾을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보람을 '얻어야만 한다.' 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생긴 것이었다. '봉사활동' 을 하러왔다, 도움을 '주러' 왔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보람' 만 찾다 모든 시간을 허비할지 모른다.

그러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배워가려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KL 생활의 절반 이상을 차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하러, 더 많은 배움을 얻으러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게 되었다.**

2. Rumah Bethany, 새로운 보금자리.

1) Kampong, 마을을 만나다

Kampong, 캄퐁은 마을이다. 한국의 설, 추석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가 꽉 막히듯, 말레이시아의 Hari Raya 명절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Kampong으로 가는 차에 올라탄다. 이것이 바로 Balik Kampong, 귀향이다. Kampong은 고향이자 마을이며 도시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6주간 머물게 된 Rumah Bethany, Bethany Home은 바로 이런 작은 Kampong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Kampong을 생각할 때 '시골' 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는데 이 마을도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상상했듯 정말 시골, 마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곳이다. 이런 위치상의 특징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 도시에 위치했던 Wisma Harapan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이 마을에서 Bethany Home은 단순히 특수 장애아동 학교가 아니다. 이 학교는 이 마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 학교의 학생들을 옆 집 꼬마와 같은 친근한 아이들로 생각한다. 주민들은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다. 마을 사람들에게 Bethany Home 아이들은 특수한 아동이 아닌, 그저 귀여운 동네꼬마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동네에 특수장애아들을 위한 학교가 생긴다고 하면 머리에 끈을 묶고 반대를 한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말이다. 마치 자기 아이가 지독한 전염병에 옮기라도 할까봐 호들갑을 떨고 치를 떤다. Not in My Back Yard. NIMBY. 이 단어는 마치 한국의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만 같다. 장애아들을 위한 학교가 무엇에 그다지도 해로운가? 대체 언제부터 더 다양한 아이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내 울타리 속에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도 힘든 일이 되었을까. 이상한 눈초리도, 슬슬 피하는 발걸음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을에선 그저 아이는 아이일 뿐. 내 아이든 옆 집 아이든 Bethany Home 아이든 구별할 수 없다. 구별할 필요도 없다. 아이를 아이로, 학교를 그저 학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부러워해야 하고 있자니 참 씁쓸하다.

2) Rumah Bethany, Bethany Home. 학교를 넘어선 학교.

Bethany Home은 학교다.
학급들은 6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고 레벨은 아동의 나이와 학습수준을 고려해 정해진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레벨6의 학생이 레벨3보다 학습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해력이 빠르다고 단정 지어 생각할 수 없다. 학급에 5명에서 많게는 7명의 학생들이 있고 수업은 주로 바하사 말레이시아, 영어, 수학, 체육, 수영, 기술로 나뉘어져 있다. 체육 교사와 자원 활동가가 따로 있는 체육 과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처럼 모든 수업을 담임선생님이 다 맡아서 한다. 또한 레벨1에서 레벨 6까지의 학급 외에 성인들을 위한 Joy, Peace, Love 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봉투붙이기, 카드 만들기 등의 간단한 작업을 통해 소액의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Light House도 있다. 레벨6까지의 모든 학습 과정을 무사히 치러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Light House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론 학교 밖에서 직장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학교 구조 안에서 우리 5명을 포함한 모든 자원 활동가들은 스스로 자신의 할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처음 도착한 자원 활동가들은 일주일 정도의 관찰기간을 가지고 여러 수업을 둘러본다. 그 중에 자신이 특별히 들어가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해서 스케줄을 짜는데 반영할 수 있다.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스케줄이 정해지는데 그 스케줄이 각 학급 선생님들과 미리 의논하여 짜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다시 그것을 조정하고 담임선생님들과 일대일로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처음에 우리는 짜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는데 체육시간이라 밖에 나가있는 반들이 많았고 선생님들마저 우리가 그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우리 5명 모두 함께 진행하기로 한 클래스는 총 5가지, 미술, 노래, 요리, 댄스, 태권도이다. 나와 Annie, Ina는 한국의 동화를 영어와 말레이어로 번역해 Storytelling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고 Halim, Jake는 풍선자동차를 만드는 science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 다른 학급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관찰, 계획, 보완 수정을 거쳐 탄생한 나의 시간표는 대충(아직도 수정할 부분이 남았다) 이렇다. 우리 5명의 시간표는 모두 다르다.

Sue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월	storytelling(4a)	singing(5a)	dance(4,5,6)	swimming(4a)	assistant(4a)
화	storytelling(L1)	singing(5b)	art(5a)	cooking	assistant(3a)
수	kitchen assistant	singing(L6)	art(L6)	assistant(4b)	assistant(4a)
목	assistant(5a)	singing(4a)	assistant(4a)	dance(4,5,6)	assistant(L6)
금	kitchen assistant	singing(4b)	assistant(joy)	Taekwondo	

-학교생활

일과는 이렇다.

새벽 7시 반, 옆집 그룹 홈 아이들과 등굣길에 오른다. 걸어서 약 30분 정도 거리. 다행히 아침엔 덥지 않아 어렵지 않다.
비몽사몽 학교에 도착하면 약 8시. 바로 아침 예배 겸 조회가 시작된다. 이 예배에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참가해야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바로 알림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찬송, 설교, 알림사항 전달까지 끝내면 약 8시 20분에서 30분.

아이들과 학교 건물에서 정문까지의 길을 돈다. 아이들과 아침은 먹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조깅을 하는 셈이다.
걷기를 끝내고 8시 45분이면 다 같이 운동장이나 홀에 모여 아침 체조를 한다. 체조는 선생님들이 진행하거나 자원활동가들이 진행하게 된다. 우리들은 체조를 잘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 체조를 한다.

9시부터는 비로소 수업이 시작되는데 각자 레벨 별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거나 야외에서 체육수업을 받기도 한다.
10시에는 간단한 아침 겸 tea time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메뉴는 주로 식빵과 버터, 혹은 쨈. 그리고 차나 마일로. 잔디밭 옆 벤치에 앉아서 30분 동안 여유롭게 쉬고 나면 2교시 수업이다.
11시부터 12시까지 3교시 수업을 끝내고 점심을 먹는데 모두들 이곳 식당에서 준비한 급식을 먹는다. 메뉴는 주로 밥과 커리. 목요일은 모두가 사랑하는 닭고기가 나오는 날. 특히 난 일주일 내내 그 날만 기다린다.
밥을 먹고 한 숨 돌리면 1시 4교시 수업. 이 시간은 거의가 우리 5명이 진행하는 수업이 대부분이라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다. 가끔은 밥을 빨리 먹고 수업준비를 해야 한다.

2시부터 3시까지 5교시 수업을 끝내면 학교에서의 모든 일과가 끝난다.

-팀 공동 진행 프로그램

우리는 보조교사로 그저 따라가는 활동만 하기엔 일상이 지루하고 큰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함께 스케줄을 논의하는 Mr.Koo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5명 모두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는 클래스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일단 한국에서 구입해 온 여러 가지 미술 재료와 미술을 전공하는 Ina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는 미술 수업, 어린이들을 위한 쉬운 노래들을 영어와 말레이시아어로 번역해 함께 불러보고 더불어 영어 학습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노래 수업, Annie, Ina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간단한 쿠키 만들기 등을 함께 해보는 요리 수업을 계획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KL에서 공연했던 꼭두각시와 탈춤을 단계별로 가르치는 댄스 수업, 그리고 기본적인 태권도 동작을 가르치는 태권도 수업까지. 이렇게 총 5가지를 모든 팀원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 번 진행한 **미술 수업**에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전통 부채 만들기를 했다. 미술 수업을 맡아서 계획하고 준비하기로 한 Ina는 과연 이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걱정을 안은 채 수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한 걱정 때문인지 Ina는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료를 미리 잘라놓고 인체에 무해한 밀가루 풀을 준비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우리는 원활하게 미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간단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수업에 임했다. 이 수업을 잘 끝낸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의 수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Ina는 이 수업 이후 아이들이 항상 못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가능한 아이, 불가능한 아이로 나누었던 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나 또한 '왜 우리는 아이들이 못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잘하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못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하루 30분씩 진행하게 된 **노래 수업**에서는 한 노래를 정하고 율동을 만들어 한 주 동안 매일 다른 레벨의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우리의 첫 번째 노래는 올챙이송이였는데 처음에는 칠판에 가사를 적고 함께 노래와 율동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던 것이 나중에는 개구리의 성장과정을 그린 그림도 보여주고 간단한 말레이어로 가사를 설명하기도 하는 등 나은 방향으로 수업방식을 수정해나갔다. 올챙이송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개구리의 성장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효과도 크다. 아이들은 율동을 배우면서 때때로 정말 개구리처럼 높이 점프를 하며 새로운 율동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노래만 부르면 심심했을 수업이 쉽고 귀여운 율동을 곁들이면서 훨씬 즐거워진 것이다. 학급 선생님들 역시 이 수업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고 그러한 칭찬에 힘입어 요즘 우리는 더 좋은 노래수업을 위해 또 다른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가사와 그림을 넣은 학습 자료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배운 노래를 보다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다음 주 우리는 '곰세마리' 를 부르며 아이들에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요리 수업. 은 말할 것도 없이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이다. 사실 아이들보다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가 더 신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수업은 아침 tea time을 준비하는 cafeteria의 학생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덩치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큰 아이들이다.
요리 수업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자원 활동가 Jackey도 참여한다. 자신도 요리를 좋아한다며 함께 해도 되냐고 어색하게 묻던 Jackey는 이제 우리와 수업을 함께 하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요리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 전통과자 매작과를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아이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피자토스트를 만들었다. 이것저것 손으로 만들며 좋아하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샀는지까지 물어보시며 이 수업을 또 하고 싶어 하셨다. 요리수업은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 평생을 학교에서, 혹은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 아이들에게 영어보다 수학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실용적인 생활훈련, 또는 직업훈련이 아닐까 생각한다. Self-dependence. 스스로 스는 것. 스스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곳 베다니 홈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일이 커져 버린 **댄스 수업**. 처음엔 그저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논다는 의미가 더 큰 수업이었다. 우리가 KL에서 췄던 꼭두각시 춤과 탈춤 정도의 수준이면 아이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우리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제안하게 됐다. 첫 수업은 레벨4A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곧잘 따라했다. 그 모습이 좋았는지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함께 춤을 추시고 바하사로 열심히 통역을 해주셨다.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고 이 춤을 다른 학급 아이들 몇 명과 함께 매일 수업하면 어떻겠냐고 물으셨다. 열심히 연습해서 11월 중순 KL에서 있을 Joggathon에서 공연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순간 당황했지만 엉겁결에 '네' 하고 대답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레벨4,5,6에서 뽑힌 춤 잘 추는 8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름 체계적인 댄스 수업을 하게 되었다. 매일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된 댄스 수업. 1시간 동안 아이들과 춤을 추고 있으면 목도 아프고 더워서 땀도 많이 나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보람 있고 즐겁다. 과연 어떤 공연을 하게 될지 기대도 되고 말이다.

Jake의 주도하에 진행하게 된 **태권도 수업.** 이 수업은 Phoenix club이라고 학교 내에 스포츠클럽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스포츠클럽이라고 모두 운동에 능한 것은 아니고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학생 한 명과 잘 못하는 학생 두 명을 한 조로 만들어 한 명이 두 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삼인 일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처음 Phoenix club 담당교사인 Mr. Moe는 우리가 잘하는 팀의 리더들만 모아서 따로 태권도 수업을 해주길 바랐는데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가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정도로 잘하는 수준도 아닐뿐더러 잘 하는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태권도 수업을 계획한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우리는 아이들이 태권도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보다는 함께 몸을 움직여보고 '태권도가 이런 것이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수업을 하고 싶었다. 첫 번째 수업을 하고나서는 오히려 그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는데 그 이유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수업을 흥미로워하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해본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이 자신이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있다고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키워주고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 외 수업들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 5개의 클래스 외에 개인이 각자 들어가는 수업보조 활동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한국에서 이런 특수학교에서의 경험이 있는 Jake를 제외한 4명은 모든 것이 새롭고 도리어 우리가 수업을 받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Jake 또한 자신이 활동했던 제주도 '영지학교' 와 다르게 자원 활동가들이 장기간 상주하며 매일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새롭고 아이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특히 수업 방식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다채로워 한국에 가서도 이런 방식을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부터 여기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며 결코 우리의 미래와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영어수업과 바하사수업은 주로 간단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고 읽으며 익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영수업은 우리가 바라던 첨벙첨벙 물놀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물을 휘휘 젓는 정도. 체육수업은 JEICA에서 파견된 일본인 마사미와 deaf 체육교사 아즈미가 매주 어떤 종목을 해볼지 결정하고 한 반씩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게 되어있다. 수업들은 나름의 잘 갖추어진 체계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충하고 시도해보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온 자원활동가 Cora와 Bennie는 작은 하프를 가지고 음악수업을 하고 있으며 Astrid는 자신의 전공인 occupational therapy를 적용하여 여러 가지 워크샵을 기획,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조하고 있다. 이곳은 자원 활동가들이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 시도해볼 수 있는 시스템 아래 운영된다.

문득 교실 앞에 적힌 "Do not look at our disabilities, but look at our abilities!" 라는 문장이 생각난다. 우리는 왜 이 아이들의 장애만 보고 있었을까. '이 아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만 보았을까. 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를 본다면,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상들을 할 수 있을텐데...

일부 선생님들은 댄스 수업이나 태권도 수업을 하는 우리에게 잘 하는 아이들을 골라서 따로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잘 하는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잘 못하는 아이들은 배제한다면? 그렇게 했더라면 물론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 잘 정돈된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잘 하지 못해도 재밌어하고 어려워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가는 방향을 선택했다. 물론 부모님들은 왜 잘 하는 아이를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지 않는지, 왜 잘 하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지 않는지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잘 못하는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최선에서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의 장애를 보기보단 아이들의 능력, 아이들의 특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3) Thanks giving,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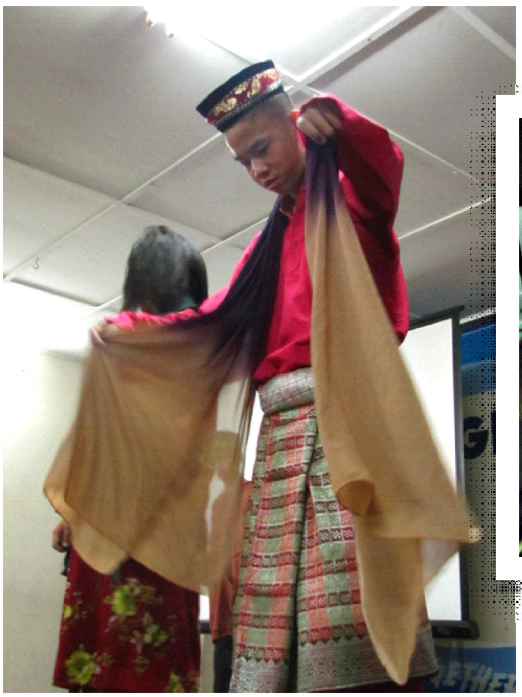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직면한 과제는 Thanks giving 공연준비였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영어노래를 연습하고 우리 5명이 따로 준비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도 함께 연습해야 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많이 연습하진 못했지만 나는 뒤늦게 도착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Bethany Home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물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독교는 아니다. 말레이시아 전역이 그렇듯이 선생님, 학생들 모두 힌두교인, 기독교인, 무슬림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곳의 Thanks giving은 Deepavali, Hari Raya를 모두 함께 축하하고 즐기듯 기독교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삶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날을 위해 베다니 홈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자원 활동가들까지 모두 각자의 마음을 모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장기자랑을 준비한다. 특히나 다른 이들에 비해 쉽게 무언가를 익히기 힘든 아이들은 그만큼 준비기간이 긴데 나는 몇 주에 걸친 아이들의 연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 예뻐 보였고 이러한 과정 역시 축제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Thanks giving 행사 당일.
1시간은 교회에서 찬송과 여러 가지 공연을 보며 행사를 즐겼다. 그 뒤 홀로 장소를 옮겨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며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공연을 잘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내는 장면에 함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즐거움이었다. 실수를 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그저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다들 노력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못한다고 혼내고, 더 잘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그런 식의 논리는 이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이들의 노력과 정성에 그저 박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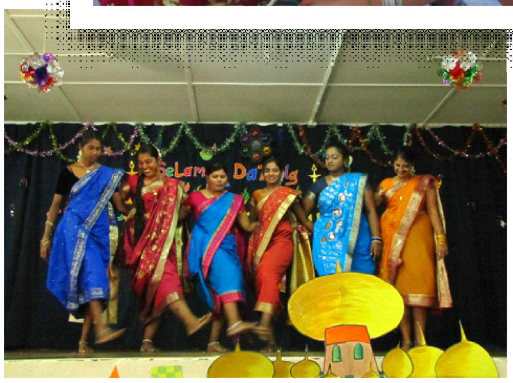
사실 이건 아이들뿐만 아닌 우리의 경우이기도 했다. 우리는 잘하지 못했지만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에도 이방인들에게 항상 관대한 말레이시아인들답게 한복을 입은 우리는 뭘 해도 신기하고 뭘 해도 웃어줄 수 있는 대상이었다. 사실 많이 긴장했지만 공연은 잘 끝났고 다들 재밌어했다. 한국어로 노래했지만 그 노래 가사처럼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a person who is born to be loved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4) Deepavali, 인도인들의 축제를 넘어선 모두의 축제!

다른 자원활동가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다. 여기서 일을 하는 시간보다 밥을 먹는 시간,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는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축제를 함께 하고 있다. Bethany Home에서 지내는 6주간 Thanks giving, Deepavali, 그리고 Hari Raya Haji까지 세 번의 휴일이자 축제가 있다. 매 기간마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행사가 있어 수업보다는 행사 준비로 더 바쁘고 매 기간마다 학교를 쉰다. 하긴 Deepavali라고 인도인만 쉴 순 없고 Thanks giving에 기독교인만 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문화 덕에, 그리고 모든 문화를 존중하는 생활 방식 덕에 일하러 온 우리는 참 많이도 쉬게 됐다.

어두운 색 피부를 가진 인도인들의 축제, Deepavali. 학교에선 Deepavali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Thanks giving 행사 바로 몇 일 후였다. Thanks giving 행사보단 작은 규모였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공연과 학부모까지 모두 참여한 성찬이 벌어졌다. 손으로 먹는 인도음식의 맛이란. 평소와 조금 다른 의미로 참된 손맛을 맛볼 수 있다. 바나나잎을 접시로 해서 그 위에 쌀밥, 커리, 야채 등을 올리고 손으로 쓱쓱 뭉쳐서 먹고 있자니 내가 인도음식에 참 많이 익숙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레이시아의 인도는 진짜 인도와 똑같은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당당히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인들은 평소에도 전통의상 사띠를 많이 입고 음식은 항상 손으로 먹는다. 이제는 이미 말레이시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문화를 인도문화라고 부르기도 어색하지만 분명한 건 인도인들은 인도인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레이시아의 한 부분, 한 가지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즐기게 되었다.



3.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1) 집으로 가는 길에 주저앉지 않는 방법

PANAS, 우리가 자주하는 말이다. '덥다' 그렇다 물론!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덥다. 앞으로도 쭉 더울 것이고. 사실 이 더위가 한국의 더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국내 훈련 때 구미의 땡볕 아래서 살아남았던 우리가 이 더위를 불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구미가 더 더운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구미의 폭염은 살인적이었다. 하지만 구미 길 한 복판에서 주저 앉지 않고 걸었던 힘은 숙소에 가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에어컨' 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 친구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며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줬다. Bethany Home에서 처음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우리 집에 그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휑한 빈자리는 천장에 크게 달려있는 Fan이 채우고 있다. 우리는 처음 집에 도착해 그마저 세 방 중 두 방의 Fan이 고장 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 Halim은 상의탈의를 일삼는 것은 물론 방을 탈출해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나는 부엌에서 잠을 자는 참으로 불쌍한 상황을 연출해야 했다. 며칠 후 Fan이 고쳐지긴 했지만 나는 지금도 그 시간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다.

집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붕이 없는 길 한복판은 어떨까. 말할 것도 없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30분. 해가 없고 선선한 아침엔 이 길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귀가길이다. 학교일이 끝나는 3시가 되어 길에 올라서자면 정말 "나는 못가겠다" 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한동안은 해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밖이 밝다는 것만으로 두렵고 무서울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 그룹홈으로 가는 아이들의 버스에 끼여 앉게 된 것이다. 누군가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한숨을 쉬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건 더위의 문제인가?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과거를 들쳐보게 됐다. 결론은 더위 때문도 에어컨 때문도 아니었다. 에어컨 없이 더운 여름을 지낸 게 거의 16년. 고등학교 때부턴 학교에 에어컨이 있었지만 집에선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한 번도 지금처럼 여름이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힘들 때가 없었다. 문제는 습관이다. 언젠가부터 몸에 습관처럼 밴 에어컨 바람이 없으니 지치고 짜증이 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더위에 익숙해지고 있다. 처음 Bethany Home에 도착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덥다, 죽겠다, 아이고' '덥다' 말할수록 더 더워지고 '죽겠다' 말할수록 더 견디지 힘들어진다는 걸 깨달았다. 몸이 땀에 절어도 물 한 바가지에 씻어버리면 그만이고 옷에서 소금이 떨어지겠다 싶을 땐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간다. 익숙했던 것에서 멀어지며 새로운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덥다고 죽지는 않는다.

2) 이웃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

우리의 이웃은 Bethany Home 아이들이다. 우리 옆집은 7명의 아이들이 사는 그룹홈인데 그곳은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나와 아이들끼리 함께 머무는 곳으로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공간이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스스로 아침밥을 먹으며 그곳에 상주하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학교로 등교한다. 우리가 이사를 오고난 후로는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등교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등교하는 것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역시 이웃은 음식을 나눠먹어야 돈독한 정이 생긴다는 한국식의 믿음에 도달했다.

가장 먼저 시도한 음식은 '쉽고 간단할 것' 이라 예상했던 고구마 맛탕. 예상은 바로 빗나갔다. 사실 고구마 맛탕은 집에서 처음 만들어본 음식이기도 했는데 완성하고 내가 했던 말은 '집에서 음식 다시는 안 해야겠다.' 였다.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되는 더위. 뜨거운 불 앞에 서서, 펄펄 끓는 기름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땀이 비 오듯 흐르고 1시간 운동한 것만큼의 체력소비가 되는 것 같았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다. 유난히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 말레이 사람들이 매일 가스불 앞에 서서 튀김요리를 하고 있자면 식탁에 앉기도 전에 씹을 힘마저 없어질 것이다.

그래도 완성한 맛탕을 아이들과 나눠먹자니 마치 굉장한 요리를 한 듯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뭐니 뭐니 해도 접시를 통해 이웃의 정이 오고가는 것 아니겠는가. 아이들은 요상한 음식에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는 진심인지 친절인지 모를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이미 기분이 좋아져버렸다.

이런 좋은 반응에 맛탕을 마지막 요리로 정했던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라면. 생일 선물로 한국라면 한 박스를 선물 받은 나는 이 많은 라면을 우리끼리 먹는 것보다 아이들과 나눠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번에는 대히트였다. 역시 한국라면은 나를 제외한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가보다. 세 번 네 번씩 냄비를 긁어대는 아이들을 보며 역시 음식은 나눠먹어야 더 맛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함께 라면을 끓이고 나눠먹고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맛있게 먹어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또 무언가를 함께 해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친구로, 이웃사촌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오늘도 고민한다. 아이들과 같이 해먹을 맛있는 건 또 없을까하고.

Birthday Girl on October

내가 내 생일에 대해 쓰려고 하니 어색하기 짝이 없다. KL에서 두 오빠들의 생일을 우리끼리 축하했던 것과 달리 Bethany Home에서 맞은 내 생일은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 했다. 생일인 22일의 eve격인 21일에 여기서 새로 사귄 다른 자원 활동가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는데 우리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음료를 사오기로 했다. 짧은 시간에 나와 많이 친해진 Jackey는 직접 구운 바나나 케이크를 가져와 나를 기쁘게 해주기도 했다. 케이크 없는 생일은 정말 섭섭할 뻔 했는데, 거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팀원들의 선물(내가 원했던 바로 그 스니커즈)과 독일게임까지 더해져 나름 Happy Birthday를 보낼 수 있었다. 물론 마지막엔 눈이 감기는 내게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며 12시 종이 울릴 때까지 있어주었던 친구들의 지나친 친절함에 몸이 몹시 피곤하기는 했지만 말이다.(Annie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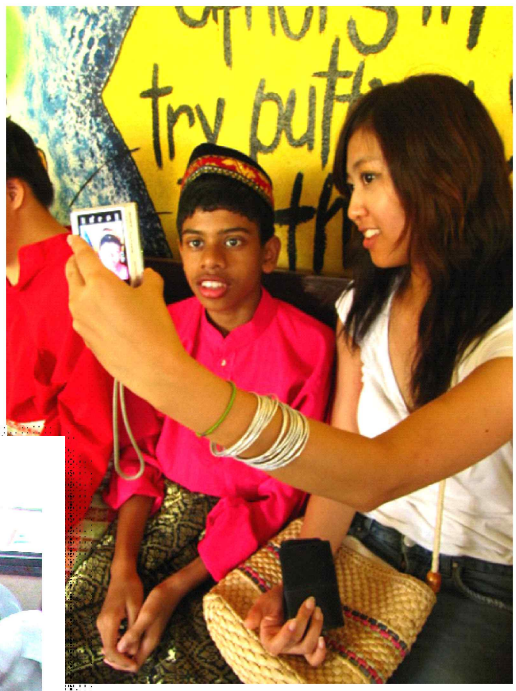
벌써 세 번의 생일이 지나갔다.
그리고 두 번의 생일이 남았다. 생일이 좋은 건 결코 선물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는 아니다. 함께 축하해줄 친구가 있고 즐겁게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생일이 더 특별해진다. 말레이시아에서 보내게 된 특별한 생일. 그리고 특별한 친구들.
우리는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생일도 행복하게 보내게 되길 바란다:)

4. 이해를 넘어선 친구

우리는 항상 이해하려고 든다. '난 널 이해할 수 없어.' '이제 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꼭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또한 어쩌면 남으로부터 이해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보통 이해는 오해로 끝난다. 누군가를 이해했다고 확신하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처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이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솔직한 감정에 대해 말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팀원들도 느끼는지, 팀원들은 내 생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우리는 KL에서 deaf들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했다. 그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낳은 내 아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고 해도 그걸 큰 고난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deaf들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뿐이지 생각하고 소통하고 표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풍부한 표현을 만들어낼 때가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며 동시에 떠오른 것은 과연 내 아이가 정신지체아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겪어보지 않고는 결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Jake의 말대로 쓸데없는 상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기회에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해보고 싶다. 지금의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이 아이들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장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 Ina는 사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마냥 즐겁지는 않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준 것만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조금이나마 이해했나 싶은 이 아이들의 속도와 지능에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이다. Annie 역시 이런 아이들을 키운다면 어떻게든 키워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아이와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상상했던 것들 중 상당부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감정들은 나나 Halim, Jake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정상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아이를 내 범주에 쉽게 넣을 수 없다는 걸 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상상을 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민은 절대 해볼 수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친해지고 있다.
우리는 변했다.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이해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왜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왜 꼭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납득을 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걸까. 그래야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다보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게 됐고 같은 얘기를 매일 계속하다보니 그 얘기의 다른 의미도 찾게 된다. 뭔가를 가르쳐주기보다 들으려는 마음으로 있으니 정말로 뭔가가 들린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걸 배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을까.


try

베다니 홈, 모두의 집. 이곳에서 우리의 10월. 그리고 10월의 말레이시아_

딱 절반이 지나갔다. 42일 중 21일이 지난 지금, 뒤를 돌아보자니 아직 시작인 듯싶고 내일이 첫 날인 듯 느껴진다. KL을 떠날 때 6주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6주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 되었다.

베다니홈의 생활은 느리게 돌아간다. 천천히 움직이고 많이 쉬어가며 가끔은 돌아서 가기도 한다. 집에선 인터넷을 쓸 수 없고 택시는 다니지도 않으며 먹고 싶은 음식, 자주 참아야한다. 우리는 이 생활을 견딜 수 없을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견디고 있지 않다. 그저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10가지 일을 했을 시간에 한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고 차를 타면 5분에 갈 거리를 30분씩 걸어갈 줄 안다.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Bethany Home 아이들은 느린 친구를 기다릴 줄 알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에겐 몸짓발짓으로 설명할 줄 안다. 이 아이들을 보며 세상을 너무 빨리 배워버려 어떻게든 친구보다 잘하려고 누구보다 잘나려고 애쓰며 사는 우리의 어릴 적을 생각하면 슬프다. 우리는 어릴 적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커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여기 아이들을 통해 본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 친구의 손이 되어주고 걸을 수 없는 친구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친구란 서로 결점을 파내어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 당연한 사실을 지금에야 깨닫게 해준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위에 지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지치기도 했으며 서로에게 지치기도 했다. 더위는 짜증을 만들고 몸이 지치면 모든 것이 싫게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끝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소진이라는 말은 떠오르지 않는다. 지쳐도 곧 다시 회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에어컨이 있는 KL에선 몰랐던 걸 이 더운 집 선풍기 앞에서 배워가는 중이다.

글 : 조수영, 박은유
그림 : 신인하
사진 : 윤하림, 신인하, 조수영

Kawan, sl sebelah pemahaman, 10월의 말레이시아